

2024년
8월 21일 水
(August-2024)

Monthly Yangji



• Edited / 입학상담실 (Rhee) • Published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16 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 (031) 326-5000

□ 입시 소식

① 수능 D-100 7계명

1. 주변 환경에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라

수능을 1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기 마련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부족한 성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무전공 선발, 의대 증원, 자연계 지정 응시 과목 폐지 본격화 등의 대입 이슈 발생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질 수 있다. 특히,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수시 원서접수 시즌에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

2.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

수능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본인의 취약 영역은 물론, 평소 자신 있던 영역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그 동안 풀어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맞힌 문제인지, 단지 운이 좋아 맞힌 문제인지, 또는 알면서도 실수로 틀린 문제인지,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철저하게 보완한

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학습하라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실전 모의고사나 고난도 문항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학습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정 과목에서 개념이 부족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개념 위주로 공부해 기본을 탄탄히 하고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면 충분히 수능 전까지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2025 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예고편에 해당되므로 문항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기본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해나가야 한다.

4. 영역별 학습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라

취약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나머지 영역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면 자칫 해당 영역에 대한 실전 감각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영역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자신 있는 영역이라도 매일 꾸준히 기출문제를 풀어 실전 감각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5. 전형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공부하라

수능이 100여일 남은 시점에는 수

시와 정시에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확인하여 특정 과목에서 안정적인 등급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해야 한다. 정시 전형 역시 계열에 따라 반영하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가 다르므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본인만의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

6. 실전처럼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라

실제 수능시험에서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해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전처럼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는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되, 쉬운 문제부터 풀고 일정 시간 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모르는 문제를 오래 풀다가 아는 문제까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때 풀지 못한 문제는 다른 문제를 모두 푼 다음 다시 풀어 답안지 마킹까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연습해두는 것이 좋다.

7. 수능형 생체 리듬을 만들어라

수능시험일에 가까워질수록 본인의 생체 리듬을 수능형에 맞추어 실전 감각을 체화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이른 오전 시간에 국어 비문학을 집중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거나, 점심식사 이후 긴장이 느슨해질 시간에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다. 새벽에 주로 공

부하는 학생이라면, 오전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면 패턴을 미리 조절해두어야 한다. 수능은 국어영역 80분, 수학영역 100분 등 꽤 오랜 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남은 기간 동안 2시간 단위로 끊어서 학습하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수능시험에 최적화된 생체 리듬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된다.
출처: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2025 논술전형 종합정리

1. 논술전형 출제의 기본 특징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 논술 100% 또는 논술 + 학생부 반영
-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이 높지 않아 논술 점수가 당락에 영향
- 계열별 논술전형의 논제 유형 파악이 중요

2. 논술 대비 Tip

→ 대학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 활용하라

- 논술 전형 가이드북 : 당해년도 논술전형의 세부 특징 및 논술 문제 안내
-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 전년도 논술 기출문제 확인 및 출제 근거 분석 가능
- 모의논술 문제와 해설 및 논술 안내 동영상 : 대학별 논술문제의 유형 파악과 대비에 도움

3. 인문 논술

- 인문계 : 인문통합논술
- 상경계 : 인문논술+수리논술(도표,통계)
- 교과논술 : 국어+수학또는국어+사회

유형	대학	
언어논술	가톨릭대, 경희대(인문·체육),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인문), 아주대, 이화여대(인문 I), 중앙대(인문사회), 한국외대(인문계열), 한양대(인문), 홍익대	
언어논술 + 도표·그래프 분석	건국대(인문사회 I), 경기대, 경북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서울), 연세대(미래), 인하대, 한국외대(사회계열), 한국항공대(경영)	
언어논술 + 수리논술	건국대(인문사회II), 경희대(사회), 숭실대(경상), 연세대(서울), 이화여대(인문II), 중앙대(경영경제), 한국항공대(이학), 한양대(상경)	
수리논술	한국공학대(경영)	
영어 제시문 활용	연세대(서울), 이화여대(인문 I), 한국외대(인문계열)	
교과형 논술	국어+수학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
	국어+사회	고려대(세종), 한국기술교대

4. 자연 논술

- 수리논술
- 수리논술+과학논술또는과학통합논술
- 교과논술:국어+수학또는수학

유형	대학
수리논술	가톨릭대(자연, 의예, 간호),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자연), 고려대(세종)(약학), 광운대, 단국대(죽전),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자연), 연세대, 연세대(미래)(창의),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항공대(공학),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수리논술 + 과학 선택	경희대(의학계) (물/화/생), 연세대(미래)(의예) (물/화/생)
수리논술 + 과학 지정	아주대(의예): 수리논술+생명과학 (I,II)
과학통합논술	서울여대(통합과학+생명과학 I)
교과형 논술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
약술형 논술	고려대(세종)(약학과 제외), 한국기술교대
언어논술	가톨릭대(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의류학과, 아동학과)
인문논술	숙명여대(의류학과)



4. 고사일

2025학년도 논술 고사일	
논술 고사일	대학명
9. 28(토)	성신여대(자연)
9. 29(일)	성신여대(인문)
10. 05(토)	서울시립대(자연) 홍익대(자연,서울)
10. 06(일)	가톨릭대(인문,자연) 홍익대(인문)
10. 12(토)	연세대(인문,자연)
10. 26(토)	울지대(인문, 자연) (26일 혹은 27일)
11. 02(토)	상명대(인문,자연) 단국대(인문)
<수능> 11월 14일(목)	
11. 16(토)	고려대(인문,자연) 서강대(자연) 경희대(인문,자연) 건국대(인문,자연) 한국항공대(인문,자연) 송실대(인문,자연) 숙명여대(인문,자연) 서울여대(인문,자연) 단국대(자연), 수원대(자연)
11. 17(일)	성균관대(자연) 경희대(인문,자연) 고려대(인문) 서강대(인문) 동국대(인문,자연) 가톨릭대(의예,약학) 홍익대(세종) 수원대(인문) 숙명여대(인문)
11. 18(월)	서울과기대(자연) 삼육대(인문,자연)
11. 20(수)	한국기술교육대 (인문,자연)
11. 22(금)	경기대(인문,자연) 연세대(미래,인문,자연)
11. 23(토)	중앙대(자연) 경북대(인문,자연) 고려대(세종,인문,자연) 광운대(자연)

	부산대(인문,자연) 동덕여대(인문,자연) 세종대(인문) 신한대(인문,자연) 이화여대(인문) 한국외대(인문) 한양대(인문)
11. 24(일)	한양대(자연) 이화여대(자연) 덕성여대(인문,자연) 세종대(자연) 가천대(의예) 한국공학대(인문,자연) 한국외대 (글로벌,인문,자연), 광운대(인문) 중앙대(인문)
11. 25(월)	가천대(인문,자연)
11. 26(화)	가천대(자연)
11. 30(일)	인하대(인문,자연) 아주대(자연,의대)
12. 01(일)	인하대(인문,자연) 아주대(인문) 한신대(인문,자연)

@ 상세일정은 꼭 해당 대학, 홈페이지 재확인 필요!!

③ 합격 수기
(나는 이렇게 공부 했다!!)
13기 최민석 (한양대, 중앙대 의대 합격)

Q. 재수 성공 한마디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고 요일별 계획에서 큰 변화 없이 하루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일관된 생활 패턴이 가능했기에 학습 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도 요일별, 시간별 계획을 짜 놓았고, 학원 스케

줄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계획표대로 학습하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 아니라서 매일 계획을 세우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통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일 년 내내 크게 감정 변화 없이 무덤덤하게 생활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든 그렇지 않든 들뜨거나 침울해 하지 않았고, 학습에 큰 지장이 없다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쓰다 정작 중요한 본인 학습에 신경을 못 써 리듬이 망가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무덤덤하고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온전히 저 자신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정한 생활 패턴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수험생 본인의 몫이고 수험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수험 생활이 끝난 후에 스스로에게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긍정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수험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Q. 메가스터디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인가요?

메가스터디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메가스터디가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역 수능 때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채로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을 다니다가 수능을 한 번 더 보

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능을 다시 응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학원을 선택할 지 고민 할 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 자신이 주위에 놀 거리가 있으면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하기 힘든 환경인 기숙학원을 가장 먼저 고려했습니다. 많은 기숙학원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관리가 엄격한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강력히 추천하여 메가스터디학원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원에서 기상과 취침, 식사시간, 수업 및 쉬는 시간 등 일과 시작부터 종료까지 철저한 시간관리를 해주어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학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과시간 동안 항상 여러 선생님의 감독 하에 좋은 학업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Q. 메가스터디학원에서 대입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수험생활을 하면서 학습 담임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주변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선택했지만, 학원 내에도 학원 밖과는 다른 유형의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수험생활이 끝난 지금 돌아봐도 저의 의지로 여러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다잡아주시는 입시 담임 선생님 덕분에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종례 시간에는 저를 맡아주셨던 입시 담임 선생님의 저

녁편지를 읽으면서 수험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보완할 지를 함께 상의하면서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점점 상승하는 성적을 보며 옳은 방향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무관심으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점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쓴소리도 해주셔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험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Q.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를 소개해주세요. (과목별 학습법 포함)

어떤 과목을 공부하던 우선적으로 자신이 배웠던 것을 시험장에서 해낼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활용했을 때 시간이 단축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체화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너무 복잡하여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학습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국어는 수능 1교시에 보는 만큼 전체 시험의 리듬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여 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원 기출 N회독을 통해 독서 지문의 문장별, 제재별로 글을 쓰는데 사용되는 정형화된 틀을 익혔고 이를 기출이 아닌 N제에 적용해보며 감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이 됐을 때에는 주 1~2회 국어 실전 모의고사로 감을 유지하고 문제풀이 순서, 시간관리 등 시험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

행해 나갈지 계획하였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시간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풀이에 도움되는 여러 방법들을 배우고 이를 체화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평가원 기출을 여러 번 풀면서 같은 문제라도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면서 이전과 다른 방식의 풀이를 고민하였고,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낯선 N제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탐구과목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0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풀이를 즉각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공부를 빠르게 끝낸 후에 최근 평가원 기출과 N제를 풀면서 효율적인 다양한 풀이 방식을 익히고 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관리 연습을 했습니다.

학원 중점단속 내용 및 기간

- ▶ 물입학습관 자연입실 학생 별점부여
- ▶ 실내정숙위반 학생(브레이크룸,복도)별점부여
- ▶ 물입관 정숙유지(공부 외의 행위 별점부과)
- ▶ 쉬는시간, 식사시간 교실입실 금지
- ▶ 올바른 단체복 착용의 생활화

※ 집중 점검 기간 : 8월19일~9월9일

★ 위 사항은 양지14기 재원생들이 면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능시험 전일까지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